

# ‘감각’을 모티브로 풀어낸 미디어아트

문화재단 국제 레지던시 작가 결과전 15일~12월 17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빛·질문·기억과 꿈 등 다양한 소재 이수빈 등 작가 5명, 실험적 작품

우리는 모두 감각을 통해 일상을 영위하고 자신을 표현한다. 감각은 생존의 문제이자 표현의 문제다. 감각이 살아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문제에 대한 관심과 반응이 민감하다는 방증이다.

일상에서 느끼는 감각을 모티브로 한 미디어아트 전시가 펼쳐져 눈길을 끈다. 특히 이번 전시는 국제 레지던시 입주 작가들의 결과 보고 개인전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채로운 감각을 활용해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한 작품은 관객들로 하여금 함께 느끼고 고찰해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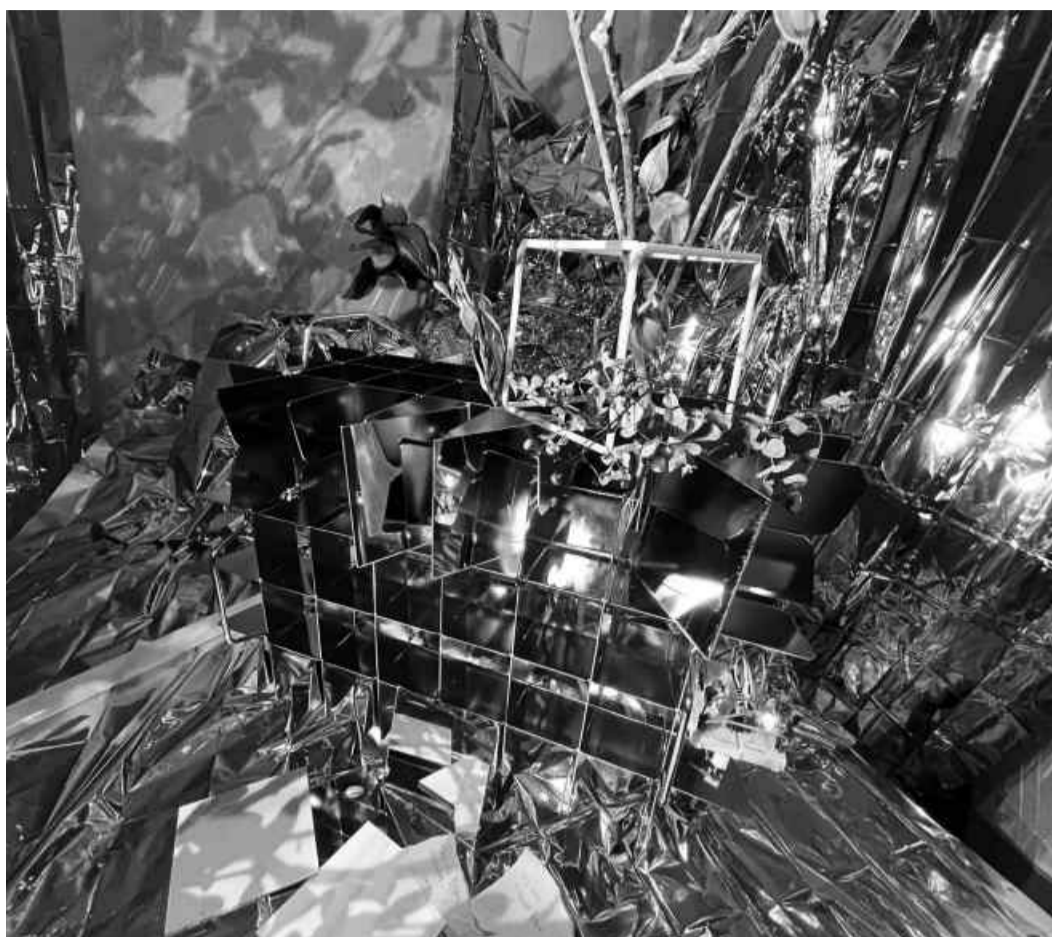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2년 미디어아트 국제 레지던시 입주작가 결과 보고전에서 감각의 문제를 다각도로 생각해볼 수 있다. 오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2층 미디어아트 338.

이번 전시는 모두 5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며 전시 주제는 ‘감각의 관점-Senses: Points of view’. 오프닝은 오는 15일 오후 4시 미디어338에서 열리며 선착순으로 작가 풀라보 달력, 리유저블 컵을 증정할 예정이다.

첫 번째 전시는 이수빈 작가의 ‘현상들의 미학’ (15-19일)이다. 빛을 매개로 한 실험적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빛과 무지선들의 실험적인 콜라보레이션으로 오프닝 세레모니를 감상할 수 있다.

전시 중 관객 참여도 가능하다. 관객들은 퍼포먼스와 연관성 안에서 나타나는 미적 요소를 만나게 된다.

두 번째 전시는 감성적인 질문을 매개로 한 관계성에 초점을 맞췄다. 정덕용 작가의 ‘녹색언덕’ (22-26일)은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우리는 죽은 이와도 연결되어 있을까?’ 등의 호기심과 맞닿아 있다. 작가는 자신 또는 타인의 그림자로 인해 별이 들지 못하는 그늘진 곳을 바라본



문화재단은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미디어아트 국제 레지던시 입주작가 결과전을 개최한다. 사진은 서은선의 ‘망각’.

다. 그 어둠이 전하는 깊은 의미를 관계성과 연결해 탐구하는 데서 전시의 주제를 추정할 수 있다.

‘망’이라는 어휘가 환기하는 중의적 의미를 탐색하는 시간도 있다. 서은선 작가의 ‘망(MEONG)’ (29-12월 3일)은 상처의 명과 생각을 비추는 망의 두 의미에 중점을 둔다. 작가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염병을 비롯해 자연재해, 전쟁, 학살 등의 비극과 마음의 병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시를 기획했다. 특히 오프닝 세레모니 치유의 공연 ‘오늘 밤은 평화롭게’ (이관우 프로젝트)는 오는 29일 오후 1시 미디어338에서 열린다.

우리가 경험했던 기억과 꿈을 모티브로 한 전시도 있다. 신해인 작가의 ‘기억과 이야기’ (12월 6일~12월 10일)는 예전의 일들이 어떻게 기억의 잔상으로 남아 있는지를 조점화한다. 작가는

MIXED media ‘전남방직에 관한 기억’을 매개로 한다. 나의 엄마, 사람들, 어둠 속의 빛 3가지 비디오투화 설치를 담은 ‘Light in the Dark’를 비롯해 영화 ‘경화와 꿈’ 등 그동안 작업했던 작품들을 펼쳐낸다.

마지막 전시는 유충선 작가의 ‘잠깐, 질문 하나만 할게요’ (12월 13일-12월 17일). 작가는 다양한 오브제 등을 토대로 소비사회는 물론 일상의 많은 가능성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작품 ‘안녕하세요-지속극장’은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흰색 석고병을 좌대에 배치한 것이다. 허리를 구부린 채 좌대를 탐색하는 모습이 인사를 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작품의 서로 다른 높이의 좌대는 불평등한 사회의 계층을 상징한다. 문의 062-670-7463. /박성천 기자 skypark@

# 광주-제주가 서로에게 보내는 위로

CNS윈드오케스트라·한라윈드앙상블, 12일 5·18문화센터



지난 8월 제주국제관악제에 참석한 CNS윈드오케스트라의 공연 모습.

광주와 전남의 음악가들이 음악을 통해 각 지역이 가진 역사적 아픔을 공유한다.

광주와 전남의 음악가들이 음악을 통해 각 지역이 가진 역사적 아픔을 공유한다. 광주의 CNS윈드오케스트라와 제주의 시민밴드 한라윈드앙상블이 12월 오후 7시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한라가 무등에게, 광주가 제주에게 보내는 위로와 우정의 하모니’를 주제로 음악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하는 CNS윈드오케스트라는 30주년을 맞이한 한라윈드앙상블과 교류 연주회 방식으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진행한다. 이날 공연에서는 한라윈드앙상블이 먼저 김은진 재일동포 작곡가가 편곡한 ‘임을 위한 행진곡’

을 선보이고 CNS윈드 오케스트라가 박수현 재일동포 작곡가가 4·3 사건을 소재로 만든 ‘진혼곡-너분송이 애기무덤을 위한 조가’를 연주한다.

이어 오카리나 연주가 오은수와 한라윈드앙상블과 마립바 공연을, 파리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윤주승 색소폰 연주자가 CNS윈드 오케스트라와 협연해 무대를 선보인다.

피날레로 CNS윈드오케스트라와 한라윈드앙상블은 이태원 참사에 위로의 마음을 담아 엘가의 ‘님로드’를 합동으로 연주한다. 공연은 전석 무료, 자율좌석으로 진행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광주 명소’ 음악으로 소개합니다

‘광주와 페스티벌’ 12일 문화전당...라포엠·이날치 등



‘광주와 페스티벌’ 공연 모습

광주 관광 명소에서 다양한 뮤지션의 공연을 통해 광주 관광명소를 홍보하는 ‘광주와 페스티벌’ 두번째 무대가 12일 오후 3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외 문화광장에서 열린다.

‘광주와 페스티벌’의 ‘와’는 오라는 의미(come)와, 접속사의 두가지 의미를 함축한 것으로 광주의 관광명소를 홍보하며 다양한 뮤지션들의 공연을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다.

광주시와 광주MBC가 음악을 통해 광주의 명소를 알리고자 기획한 ‘광주와 페스티벌’은 앞서 ‘광주를 노래하자 1탄’을 통해 지난달 26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피아니스트 오은철, 싱어송라이터 최은은, ‘이태원 클라쓰’ OST ‘시작’으로 인기를 얻은 가호, 트로트 가수 김희제가 함께한 바 있

다. 이번 ‘광주를 노래하자 2탄’에는 댄스 그룹 프라우드먼, 밴드 라쿠나, 밴드 루시, 4인조 남성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 이날치 등이 출연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로 제작해 광주의 관광이미지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광주와 페스티벌’의 마지막인 ‘See You in Gwang-ju’는 12월 3일 오후 4시 광주시청 앞에서 열리며 심센치, 조광일, 댄스그룹 HOOK, 요아리 등이 대미를 장식한다.

누구나 예약없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으며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 6번에 걸쳐 MBC에서 방송된다. 문의 062-360-2220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대상문학상 소설부문 대상에 한강

‘시-나히덕’ 등 4개 부문 선정

제30회 대상문학상 수상자로 한강(소설), 나히덕(시), 한기욱(평론), 한국화·사미 랑제라에르(번역)가 각각 선정됐다. 상금 각 5000만 원.

대상문학재단은 9일 4개 부문 수상자를 이같이 발표했다.

한강 작가는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나히덕 시인은 ‘가능주의자’, 한기욱 평론가는 ‘문학의 열린 길’, 한국화·사미 랑제라에르 번역가는 황정음의

‘백의 그림자’(Cent ombres)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위원들은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광주와 제주 4·3을 잊고 뒤섞이며 지금 이곳의 삶에 내재하는 그 선형의 시간을 온몸으로 애도하고 ‘작별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했다. 시집 ‘가능주의자’는 반딧불이처럼 깜빡이며 가 닿아도 좋을 빛과 어둠에 대해, 현실 너머를 사유하는 결연한 목소리로 들려준 점을 높이 평가했다.



소설가 한강 (왼쪽)과 시인 나히덕 (오른쪽). 올해 시와 소설 부문 수상작은 내년 번역 지원 공모를 통해 주요 외국어로 번역돼 해외에 소개된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